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인간과 죄,

세션 4, 인간 속의 신의 형상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인간과 죄의 교리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인간 속의 신의 형상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당신을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간 교리를 공부하고, 인류의 기원을 공부하고, 세 번째 주제는 인간의 헌법적 본질, 즉 우리는 몇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학적 인류학에 있어서 중심 주제이자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가기 전에 역사 신학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배경을 제공하고,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형상에 대한 뚜렷한 견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지배적인 견해는 소위 실질적 또는 구조적 견해였는데, 즉 신의 형상은 인간의 구성 그 자체에 있는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체에 대해 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조적 또는 실질적 견해의 주된 초점이 신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의 기능이나 역할이거나 우리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달리, 실질적 견해는 인간에 대한 무언가, 즉 인간 자체에 대한 무언가가 우리의 구성 그 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예는 합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인지 능력을 주셨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개념을 입증하는 두 개의 바울서신을 읽을 때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이성에서 발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어떤 동물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마음을 사용하여 그의 말씀을 읽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구조에 본질적인 이해나 구조가 있다고 확증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몸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으로서 영적인 구조에 대해 생각하세요.

기능적 관점은 교회 역사에서 훨씬 더 최근의 것입니다. 우리는 기능이 강조되는 20세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의 자리는 인간의 합리성이나 인간의 인식,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구조가 아니라 우리의 기능, 하나님이 우리를 하도록 만드신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인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문자 L로 시작하는 주님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소문자 l로 시작하는 주인입니다. 그들은 그의 부통령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통치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 나머지 창조물을 다스립니다.

이에 대한 한 예가 레너드 베르딩(Leonard Verdun)으로, 그는 이 주제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미지의 기능적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배권에 국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다른 역할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관점은 우리의 구성, 특히 우리의 이성을 강조합니다.

기능적 관점, 우리의 역할, 우리의 기능, 우리가 수행하는 일, 특히 지배권을 갖는 것. 관계적 관점은 아마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일 수 있으며, 아마도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밀 브루너가 여기서 한 예입니다.

특히 사랑, 신에 대한 사랑의 관계, 신명기 6:5, 네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마 내가 약간 영성하게 썼고 마태복음 22장을 조금 섞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우리는 레위기의 율법에서 나중에 읽습니다.

이미지의 본질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이 철학적 견해를 반영한다고 말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신학은 신체, 철학의 개, 실존주의에 흔들리는 꼬리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없다. 그것은 터무니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아니,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것,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는 우리의 구조에서 발견되지 않고, 우리의 역할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주로 우리의 관계에서 발견됩니다.

주된 관계는 신에 대한 사랑, 창조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지만, 제 결론을 지적해야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바울의 본문, 콜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4장, 콜로새서 3:9과 10, 그리고 에베소서 4:22-24를 볼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지에는 구조적 또는 본질적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에베소서 두 장, 즉 콜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4장에는 형상의 재창조에 대해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학적 추론은 이렇습니다. 이미지의 재창조에 지식, 골로새서 3장, 의로움, 참된 거룩함, 에베소서 4장이 포함된다면 원래 이미지에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타당한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체적 관점을 그런 것들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 특히 추상적인 인식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신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며, 인간 존재의 구성의 일부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랬습니다.

인류에게는 도덕적 차원과 지적 차원이 있습니다. 기능적 관점은 사실입니다. 신은 아담과 이브를 정원에 두어 정원을 가꾸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정원에서 주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Verdun의 하이픈이 붙은 서투른 단어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지배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배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주님이자 왕이신 하나님 아래에서 그들은 작은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치권과 청지기직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창조물을 돌보고 대신 통치해야 했습니다. 관계적 관점, 오, 예, 오, 예.

여기에는 진정한 진실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인간과의 관계,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세상과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역사 신학, 그런 간단한 요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증명해야 할 몇 가지 진실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각 역사적 관점은 전체 그림의 실제적인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물론, 다시 말하지만, 솔라 스크립투라는 우리가 역사 신학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조적, 관계적, 기능적 관점을 모르는 것이 정말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생각했던 것을 아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그 각각에 진실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속의 신의 이미지.

첫째,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타락 이후에도 그 형상이 유지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훼손되었지만,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4장에서 언급한 바울의 형상 회복 교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

종종, 그것은 여기서 고려되지 않으며,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배우고, 생각했던 몇 가지를 확인하고, 심지어 다른 좋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로버트 C. 뉴먼 박사는 그것을 보는 정말 흥미로운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hony H oekema는 현재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는 뛰어난 책 세 권을 썼습니다. 이 과정과 관련된 책은 구원의 적용에 대해 논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입니다. John Murray의 작은 책 외에 유일한 책은 그것입니다. 라디오 토크였나요? 성취되고 적용된 구원.

허커비의 책, *Saved by Grace*는 정말 잘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작, *The Bible in the Future*는 종말론에 대한 책으로, 마지막 것들에 대한 정말, 정말 탄탄한 책입니다. 그의 책인 *Created in God's Image*에서 그는 이미지가 매우 가치 있다는 구속사적 관점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는 원래의 이미지, 타락 후 변색되거나 손상된 이미지, 점진적으로 회복된 그리스도의 이미지,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후 마지막 날에 완성된 이미지를 구별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보고 싶지만,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야 할 곳에서 시작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창세기 1:26과 27. 저는 이미 적어도 한 번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 행위로 표현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는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들을 만드시니, 그래서 그는 그들을 그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인류의 창조가 최고의 행위라는 이 명제는 다섯 가지 증거에 의해 입증됩니다. 첫째, 신은 다른 피조물들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것을 구축해 왔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매우 좋다고 선언하셨는데, 1:31, 이는 이전 날들의 좋은 평가와 대조됩니다. 4, 10, 12, 18, 21, 25절. 다시 한번, 좋은 평가.

실례합니다, 4, 10, 12, 18, 21, 25절. 저는 미주리 복권 판매원 같고 개구리 같아요. 셋째,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만 나머지 창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습니다.

넷째, 인류의 창조는 더 개인적입니다. 이전의 창조 행위가 아니라, 존재하도록 합시다. 다섯째, 그리고 우리의 현재 관심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해석. 그러자 신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cohortative, 또는 우리가, 불완전, 둘 다 가능하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단어는 또한 형상, 유사성 또는 유사성을 의미한다.

이미지라는 단어가 유사성을 의미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BDB, 구약성서 사전, 853. 우리의 유사성에 따라.

그 단어는 유사성이나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사전 198. 신은 인류를 창조하려는 그의 의도를 제시합니다.

그는 27절까지 창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저하면서, 1인칭 복수 대명사가 구약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신약의 예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브루스 월트키.

저는 브루스 윌트키와 의견이 다릅니다. 좋지 않습니다. 저는 NIV 연구 성경의 창세기 126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NIV 연구 성경은 대명사를 하늘의 법정에 말씀하시는 신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일을 하고 사람을 그들의 형상으로 만든다. 이러한 사실들은 천사에 대한 언급을 배제하는 듯하다. 나는 여기서 너무 강경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

내가 말했듯이, 윌트키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구약성경 주석가들은 그것이 천상의 법정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사실, 윌트키는 구약성경에서 천상의 법정을 가리킨다고 언급된 다른 네 곳을 보여줌으로써 내 논문을 망칩니다. 그래서 나는 중립화되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천상의 법정에 대한 언급이든 구약의 기대이든, 저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약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상과 모습은 동의어로 받아들여야 하는 히브리어 유사어입니다. 항상 그렇게 행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레네우스는 그것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잘못 해석했습니다. 신은 그의 가장 높은 피조물인 인간을 어떤 특별한 의미나 의미에서 자신과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감각은 그것들이 두 단어라는 사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의어,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사전의 이미지 정의에 유사성도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어의 유사성은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와 유사성은 동의어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사물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다음 표현, 왜 동물원인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당화와 그들이 지배하게 하거나, 미완료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제의 순서는 *nashi*를 준동사이자 미완료로 해석하여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냅니다. 램든 문법, 27장, 107단락. 즉, 그들이 지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rada , 통치하는 것은 보통 미끼 전치사를 취한다고 표시하므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미끼 전치사는 인류가 통치해야 할 여러 영역을 표시합니다. 바다 동물, 새, 걷는 육지 동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육지 동물, 그리고 사실, 인용하자면, 온 지구를 통치하는 것, 26절.

창세기 1:27 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계획을 실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인용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 추가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바르트가 다양성 속의 인간의 통일성, 남성과 여성의 성적 지향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평등은 아담이 이브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녀가 그에게서 만들어져 도우미로 주어졌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남성의 우두머리 직분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여성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하는 고린도전서 11:7과 9의 해석을 배제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나쁜 해석을 알지 못하지만, 있다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이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1:7과 9는 여성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선함, 창세기 1:28은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용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지구를 채우기 위해 자녀를 가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성생활과 생식은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과 창세기 2:24, 25에 근거하여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가

규범적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에게 매달려야 하며, 두 사람은 한 몸이 될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어긋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는 다시 인간의 지배라는 개념을 마주칩니다. 우리는 이 노트의 제목을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사실, 또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조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지가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Leonard Verdun은 이미지가 지배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인간의 역할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Verdun은 좋은 생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이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실수입니다.

창세기 1장 26~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지배권을 갖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둘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창조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역할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dei , 아직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신의 형상, imago dei는 인간이 지배권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은 아담과 이브에게 창조된 나머지 질서에 대한 지배권을 줌으로써 인간을 자신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 신은 하늘과 땅의 주님입니다.

신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 위에 있는 주님, 소문자 1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정의에 대한 높은 관점에 적용해야 합니다. 창세기 9장은 우리, 동료 인간, 그리고 우리의 생태적 책임에 대해 그렇게 합니다. 확실히 신의 백성은 신의 행성을 돌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5:1-2와 9:6. 창세기 5:1-2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정보를 반복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붙잡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창세기 9:6에서 하나님은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며, 인용하시되,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흘러질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음이니라. 인용문 닫기. 여기서 함축하는 바는 타락한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살인자에 대한 사형의 근거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창조된 인간에게만 해당되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형의 근거로 큰 무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9-6 장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시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여기에는 이미지에 대한 본질적인 관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른 인간을 공격하는 것은 신의 형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9이 타락한 인간이 여전히 어떤 의미에서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창세기 9:6의 증거와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 이미지가 완전히 지워지고 완전히 사라졌다고 주장한 사람은 유명한 네덜란드 신학자 GC 베르코우버 였습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망가졌어. 나는 한 번은 어떤 죄수와의 인터뷰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 오, 이 남자는 동료 인간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역겹기 짝이 없었어.

내 마음은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렇게 나쁘게 만든 것이 예를 들어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 비교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견병에 걸린 개를 죽여야 했죠, 그렇죠? 이것은 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인터뷰했을 때, 그는 격노했습니다. 내가 이 텅 빈 공간에서 빠져나간다면, 나는 또 살인을 저지를 거야. 텅 빈 텅 빈.

너무 슬펐어요. 끔찍하고 못생긴 페인트를 모나리자에 뿌리거나 피에타나 아름다운 조각상에 쇠파스를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였어요. 끔찍했어요.

인간의 죄, 심지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추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사실, 우리는 신을 반영하고, 신을 형상화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야고보는 인용문에서 인간의 말의 변덕스러움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는 혀로 우리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끝내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의미는 우리의 혀가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덕스럽다. 우리는 신을 찬양한다. 우리는 신의 형상을 지닌 자들을 저주한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인지적 또는 도덕적 측면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에 대한 연구로 나아갈 것입니다. 형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타락이 그것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창세기 9:6이 타락한 인간이 그 형상을 유지한다고 가르친다면, 신약은 *imago dei*가 죄로 인해 더럽혀졌으며 회복이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내일은 신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Hoekema의 구속사적 형상 관점으로만 작업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요약할 때, 저는 많은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미지에선 분명히 네 가지 구원의 역사적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그의 형상을 지녔습니다. 그것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옳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완벽해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완벽하지 않았고, 더럽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었으며, 이는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기도 했습니다. 가을에 그 형상은 훼손됩니다. 변색됩니다.

그것은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에서 살인을 그렇게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3장에서 혀로 죄를 짓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장, 10장,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상의 회복에 대해 가르치는데, 분명히 회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회복 자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온다. 그 회복은 즉각적이지 않고 평생 지속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신자의 형상을 회복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지 10년 후에 성장하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그리스도를 더 잘 형상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숙하고 성숙한 노령의 성인을 만났습니다.

목사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 병원에 가고, 그는 그렇게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를 엄청나게 위로합니다. 그녀의 삶과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당신을 위해 성경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암송해도 괜찮습니까? 오, 정말 아름답네요.

주님을 모르는 괴팍한 노인과 비교해 보세요. 저는 목사들이 일부러 가서 그냥, 오, 그는 결코 믿지 않았어요, 목사님, 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주님, 오, 아니요, 그는 믿을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 멍청아, 알다시피, 세상에. 신의 사람을 축복해. 그리고 또다시, 신의 사람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사람은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는 이렇게 끝났지만, 그는 그렇게 끝났다. 그래도 목사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선하시다.

원래의 이미지, 손상된 이미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미지, 그리고 완전해진 이미지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과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만 그 이미지가 전에 없던 것처럼 완전해질 것입니다. 잠깐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이브는 진정한 원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맞아요. 하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럽혀질 수 없다는 의미에서 완벽해지지는 않았어요. 잠깐만요, 부활이라고 하면 몸처럼 들리죠.

오, 그것은 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전에, 본질적이거나 구조적인 것을 생각할 때 몸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몸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의 얼굴과 손 안에 있는 아기와 아이들일 때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몸과 분리해서 보지 못합니다. 그 형상의 궁극적인 표현은 실제로 신체적 측면을 포함할 것입니다.

내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바울의 형상 회복 교리를 다룰 것입니다. 지금은 이 강의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과 죄의 교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인간 속의 신의 이미지입니다.